

조계사·국제선센터 '결사 도량'으로 거듭

8, 9일 각각 선포식 개최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와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가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으로 거듭났다.

조계사는 3월 8일 오전 11시, 국제선센터는 3월 9일 오전 11시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 선포식을 병행했다.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은 중도와 연기의 세계관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추진되는 '붓다로 살자' 결사 운동을, 각 사찰 단위에서 사부대중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이다.

조계사는 생명·평화 분야를 중심으로 결사 운동을 진행한다. '달빛을 쬐요'라는 제하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포식 참석자들이 '하루 동안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한 시간 전깃불 끄기' 등의 실천사항을 서원지에 작성하면 3월 29일 오후 8시 대중전 앞마당에서 열릴 'Earth Hour' 행사에서 실천 인증샷과 함께 전시된다. 조계사는 서울시·조계종 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원 동참자들에게 멀티탭을 증정한다. 서원지 1080개 목표 달성 시 주지 스님의 프리허그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국제선센터는 수행 분야 결사도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선센터는 출가 열반 정진 주간에 맞춰 '행복한 108배'를 진행하며, 오는 4월부터 월 1회 포살법회 및 지역 환경정화운동을 추진한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을 올해 10곳, 3년 이내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야권 모임 '삼화도량' 통합

3월 11일 출범식 개최

조계종 야권 총체 모임인 3자연대가 '(가칭)삼화도량'으로 통합했다.

삼화도량은 3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총체모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삼화도량의 회장에는 영담 스님이 선출됐으며, 대변인에는 장명스님(직지사), 총책개발 등을 맡을 총책연구소 삼화연구소(가칭) 소장에는 법인스님(대흥사)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고문과 지도위원에는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삼화도량 소속 중앙총회의원은 25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차주 상보>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참여는 시대 과제”

비구니회·비구니총회의원 기자회견... 중헌·법 개정 촉구

오는 3월 18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총회 제197차 회의의 주요 사안인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담은 중헌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까지 나서서 관련 중헌 중법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중헌 중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비구니 스님들은 제안서를 통해 “비구니 승가와 관련된 법규위와 호계원 소관 사안은 비구니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오는 제197차 중앙총회에서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의 자격이 비구니도 가능하도록 중헌 중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른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개발하고 비구니 승가가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한국비구니연구소를 종단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 책정도 촉구했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초·재심 호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법 개정안은 확정된 상황이다. 조계종 중앙총회 ‘중헌개정 및 중법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적, 이하 특위)는 3월4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초·재심 호계위원회에 비구니 스님 2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중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중헌 73조 2항에서 초심호계위원은 9명, 재심호계위원은 11인으로 늘리

- 4일 중헌특위서 호계위원회 비구니 스님 2명 참여안 확정
- 종단 산하 비구니서 설립 촉구
- 자승 스님 예방해 제안서 전달

고, 비구니 호계위원도 2인으로 명문화했다. 초·재심호계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중헌 73조 3항도 ‘재심의 경우 법계 종사·명덕, 초심의 경우 법계 종덕·현덕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승려’로 변경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에 열리는 제197차 중앙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 법규·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중헌 중법 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총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중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구니 스님들은 호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일부중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종단 개혁이 이뤄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내 위치와 권한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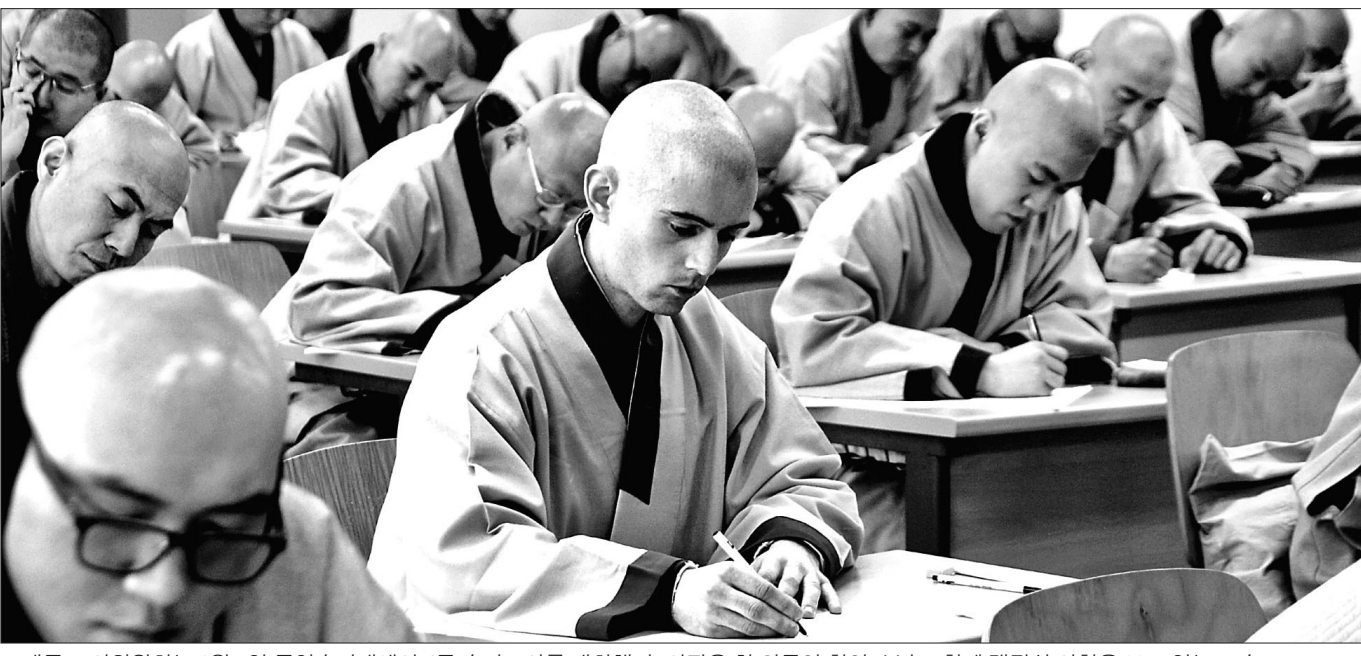
이러한 스님은 “비구니 스님에 대한 사안은 비구니 승가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갈마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면서 “비구니 승가가 종단 발전에 일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스님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관련 중헌 중법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명우 스님은 “항간에 ‘여자가 대통령이 되니 비구니도 설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승단은 엄연히 비구·비구니의 2부 승가로 이뤄진다”며 “종단혁신위원회에서도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만장일치 채택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장스님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중앙총무기관 인사에서부터 이를 도입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확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종일 기자 mtp79@hyunbul.com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3월 7일 중앙승가대에서 4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 외국인 학인 스님도 함께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조계종 교육원

‘인천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조계종, 7일 4급 승가고시... 총 246명 응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3월 7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2014년 4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이날 4급 승가고시에는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미 155명과 식자마나니 91명 등 총 246명이 응시했다. 이날 시험은 1교시 논술, 2교시 객관식,

3교시 면접으로 치러졌다. 특히 면접에서는 한글의례의식을 집전하는 것 외에 승가대학 내신성적이 서류점수로 포함됐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수행지도가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교수 스님들이 학인들의

조석예불, 사사불공, 108합회, 경전합송 등 승가대학의 일상을 평가할 것이다.

올해 객관식에는 <대승기신론> <원각경>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의 일부 구절을 번역하는 문제가 8문항이 출제되는 등 시험 유형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한편,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3월 12일 발표된다. 합격자에 한해 오는 20일부터 8박9일간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에서 병행되는 구족계 수계산람에 참가해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다.

신종일 기자

“안타까운 죽음 다시는 없기를”

조계종 노동위, 5일 송파 모녀 추모법회

송파 모녀 사건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을 등진 이들을 위해 불교계가 나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3월 5일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장부공)’과 함께 빈곤계층 자살자들을 위한 위령제 및 추모법회를 열었다. 장부공은 장애인·빈민단체들의 연대체로 광화문에서 558일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이에 앞서 조계종 노동위는 송파구 세모녀에 대한 추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위는 2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 모녀의 죽음은 이런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며 “이번 세모녀의 죽음을 우리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바라 봐야 한다. 노동위원회도 앞으로 빈곤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뗀 종호 스님은 “이는 선택적 복지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한국이 세계 무역 10대국에 올랐어도 그 결과물이 서민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노동위는 송파구 세모녀에 대한 추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위는 2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 모녀의 죽음은 이런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며 “이번 세모녀의 죽음을 우리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바라 봐야 한다. 노동위원회도 앞으로 빈곤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3월 5일 조계종 노동위는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파 모녀 등 가난 때문에 삶을 등진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병행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됨,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